

보도시점: 2023. 12. 1.(금) 08:30      배포: 2023. 12. 1.(금) 08:30

## 지하철 ‘안전’ 환경 만든다… 현장 목소리 청취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찾아가 교통안전 관련 현장 간담회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사장, 현장 담당자들과 적극행정 현장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개선을 요청한 사항 중 지하철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하고, 소관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하는 제도
- \*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27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8,198건의 국민신청을 받아 이중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475건에 대해 해당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함

- 간담회는 우선 ‘서울 지하철 1호선 급정거로 인한 시민 불편 개선 요구’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통해 처리 경험, 주요 시사점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이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노인·장애인 등의 우대용카드 사용 확인 방식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장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이후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지하철 급정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군자차량기지를 방문해 이행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과 적합한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책임자	팀 장	황준환 (044-200-7214)
		담당자	사무관	한정운 (044-200-7223)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박혜경 (044-200-7251)
		담당자	사무관	이진희 (044-200-7253)



## 국민권익위원장이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 간담회 - 시민의 발, 안전한 서울 지하철 조성 -

### □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023. 12. 1.(금) 14:30~16:30 / 서울교통공사
- 참석자
  -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 주요 내용: 간담회, 지하철역 출입 체험, 군자차량기지 방문
  -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한 업무개선사항 공유
  - 지하철 교통약자 이용 불편사항 개선방안 논의

### □ 행사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4:30	5분	차담회	서울교통공사 사장실
14:35	3분	인사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4:40	20분	적극행정 국민신청사례 발표	서울교통공사
15:00	10분	지정토론	전체
15:10	10분	현장 이동	전체
15:20	20분	지하철5호선 장한평역 방문	전체
16:00	20분	군자차량기지 방문	전체
16:30	-	마무리 정리	

※ 세부 일정은 참석 대상 사정과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